

삶에서 우러난 말과 글

이오덕
아동문학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이곳 저곳 구경하노라면 사람의 눈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상품들이 쌓이고 널려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과자와 빵을 파는 곳이다. 울긋불긋 온갖 색깔의 그림으로 된 포장을 두겹 세겹으로 해놓은 그 속에 든 먹을거리들은 뜯어 보나마나 또 온갖 색깔로 물들인 약, 향기와 맛을 들인 약, 썩지 않도록 한 약들이 잔뜩 들어 있을 것이 뻔하다. 저것들이 모조리 아이들 몸 속에 들어갈 것이란 생각을 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되었는가 싶어, 뒷골목 가게 한쪽에 아이들한테서 버림을 받아 웅크리고 있는 감자와 고구마들을 찾아가 붙잡고 울고 싶은 심정이 되기도 한다.

백화점에서 유달리 손님들의 눈을 자극하는 또 한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책을 진열해 놓은 책방이다. 대부분 천박한 만화로 된 표지가 울긋불긋 요란한 색깔로 사람의 눈을 끌고, 그 앞에 서면 그만 현기증이 난다. 그런 책들을 몇몇 아이들이 서서 역시 나처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데, 한 엄마는 데리고 온 아이를 재촉한다.

“아무거나 빨리 골라!”

아, 모처럼 책방에까지 찾아온 아이들은 또 이 지경이다. 이 가엾은 아이들이 무슨 재주로 오염투성이 책의 산더미 속에서 자기가 읽을 책 한권을 찾아 내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못고르는데!

시험점수 쟁탈경쟁에 쫓겨고 짓눌리고 일그러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런데, 시험공부를 그만두면 무슨 공부를 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옆에 아흔은, 좋은 책을 읽혀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좋은 책이라?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내가 보기로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이란 찾아내기가 아주 힘들고, 거의 모든 책들이 제발 아이들이 읽지 말았으면 하는 책들이다.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면 거의 모두가 아동문학 작품이라 하겠는데, 대체로 이 나라의 아동문학 작가들은 장사꾼이 되어 있다. 자기 작품이 비판당하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비판하는 사람을 원수같이 여긴다. 그래서 같은 패거리 서로 칭찬하는 상품광고식 작품평이나 하게 되니 아동문학에서 비평활동이 설 자리가 없다. 장사꾼들이 만들어 내는 온갖 공해식품이 그대로 아이들 몸으로 죄다 들어가는 것처럼, 온갖 문제투성이 어린이책들이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활개를 치면서 아이들에게 읽히는 까닭이 이리하다.

문학작품을 쓰는 일이 과자나 빵을 만들어 내는 일과 구별이 안된다는 것은 문학에서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이 없으니 알파한 말재주나 부리고 싶어한다. 우리 아동문학은 갈수록 말재주가 심해져서 손장난문학으로 타락해가는 느낌이 든다.

정신이 없는 것은 필경 삶이 없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작가도 글을 읽는 아이들도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삶을 잃었다. 삶을 떠난 글. 삶을 버린 문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보다도 삶이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찾아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할 것은 삶을 갖게 하는 일이다. 책도 삶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글도 삶에서 우러난 말로 씌어졌을 때 비로소 '무공해 문학'이 되고 '무공해 책'이 될 것이다.

뉴스	2	“제2 도서상품권 발권 움직임 본격화” · 외
어린이책특집	4	새 물결 일고 있는 아동도서 출판 — 조대현
	6	아동도서시장 판도변화 조짐 보인다
	8	어린이 필자가 쓴 어린이책들
	9	동화집 내는 시인 소설가 부쩍 늘다
	10	어린이책 내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 — 김병준
	11	“어른들 위한 어린이책 서평지름” — 박용자
현지취재	12	전통과 개성의 어린이책 축제마당 — 엄혜숙 제29회 볼로냐 아동도서 박람회 참관기
서평	14	이민호 「근대독일사회와 소시민층」 — 임채원 강창순 외 「현대산업사회와 에너지」 — 이병헌
	15	안병영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 임현진 음악연구회 「생각하는 음악」 — 허영한
	16	김윤식 「현대소설과의 대화」 — 전영태 한남규 「바닷가 소년」 — 김태현
출판시론	17	즐겁게 읽을만한 법학교양서 많다 — 최종고 어렵다고 기피하는 잘못된 선입관 떨쳐버려야
출판화제	18	박정희와 그의 시대, 역사적 재평가 공부정의 양극단 지양한 객관적 일차자료 늘어
리뷰	19	출판협동조합 서적상간담회 지상중계
이 책 그 사람	20	「이성과 미의 축제」 낸 강월도교수 「반쪽이의 육아일기」 낸 최정현씨
	21	「스크린 · 막 · 투슈즈」 낸 김태원씨 「세계사 100장면」 낸 박은봉씨
세계의 책	22	무슬리니 치하 이탈리아의 여성들 · 외
컬러화보	24	그림 속에 한데 어울린 책과 동심 세계 그림책 포스터전 지상전시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구성/윤정자

편집자의 말

제3회 국제그림동화원화전(5월1~10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한국프뢰벨에서 책으로 출간)에 출품되었던 그림동화일러스트로 이번호의 표지를 꾸몄다. 세계 37개국에서 220명의 작가가 출품한 393점은 하나같이 그 나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안델센상, 엘바비평가상, 브라티스라 국제그림책상, 라이프찌히 출판디자인상, 노마 그림책 원화공모 등에서 수상경력이 많은 작가들의 대표작을 한자리에 모은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그림책에 관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 아동도서 편집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또 세계 여러나라 어린이그림책 출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